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교환)방문학생)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일본	파견 학교명	시즈오카 대학교	
	파견 시기	[2026]학년도 [1]학기	파견 기간	6개월 / 1년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일본어 5A-S		일본어로 관심분야 논문 작성	
		일본어 5B-S		일본어 논문 독해	
		일본어 4A-B		일본어로 조별 토론	
		일본어 4A-D		한자 수업	
		일본어와 문화 S		일본의 종교, 역사, 문화 등 (영어로 수업)	
		정치학개론		일본 버전 정치학. 정치학이란 무엇인가부터 현대 일본 사회의 정치 문제까지 전부 다룸. (정치인 강연 有)	
		평화학		원자폭탄 문제나 오키나와 문제 등을 국제정치와 평화교육의 측면에서 배움.	
정치학 세미나		일본 정치(주로 의회 및 선거)에 대해 여러 자료를 분석.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발표에 대해 어택&디펜스를 함.			
체험수기	I .파견대학: 시즈오카 대학교				
	1. 파견 대학 소개				
	시즈오카 대학교는 1949년에 설립된 일본의 국립대학교로,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와 하마마쓰시에 두 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부, 교육학부, 정보학부, 이학부, 공학부, 농학부, 글로벌공창과학부 등 다양한 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시즈오카 캠퍼스의 인문사회과학부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하며 법학·정치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수업을 수강하였다. 특히 일본의 법과 정치, 국제관계 등을 일본어로 직접 학습하면서 전공 지식과 일본어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었다. 시즈오카 대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후지산과 매우 가까운 학교라는 점이다. 지역이 지역인 만큼 학교 곳곳에서 후지산을 볼 수 있는데, 맑은 날에는 캠퍼스에서 바라보는 후지산이 꽤나 인상적이다. 만약 시즈오카 대학교가 한국의 대학교였다면 교가에 “후지산의 정기를 받아~” 라는 가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다. 그리고 학교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어느 정도냐면 전파가 잘 잡히지 않을 정도다. 처음에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고장 난 줄 알고 당황할 수도 있지만, 전파가 터지지 않는다고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시즈오카 대학교에 잘 도착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2. 파견 전 절차

교환학생 파견을 위해 먼저 교내 교환학생 모집에 지원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파견 희망 대학과 지원 동기, 파견 후 학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교내 선발에 합격한 이후에는 파견대학인 시즈오카대학교의 안내에 따라 교환학생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시즈오카 대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일본 체류에 필요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COE 발급 후 일본 유학을 위한 비자를 신청하였다. 또한 출국 전 항공권과 숙소를 준비하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다. (항공권의 경우, 만약 본인의 캐리어가 2개라면 저가 항공보다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일본 국적기 JAL의 경우 저가항공에 짐 추가를 한 비용과 비슷한 비용이면서도, 캐리어 2개가 무료이고 기내식도 준다. 기내식과 함께 아사히 맥주를 먹으면 맛있다.)

특히 시즈오카대학교에서는 일본어 수업의 반 편성을 위한 일본어 레벨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학교 측에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일본어 시험을 응시하였으며,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일본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파견 전 일본어 실력을 미리 점검하고, 시험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문법과 어휘를 복습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해외보험, 휴대전화 및 통신, 은행 및 결제수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일본에서 사용할 생활용품과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현지에서 이용할 교통수단과 생활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도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였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 방법

시즈오카대학교의 수강신청은 일본에 도착한 후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출국 전에 미리 수강신청을 하거나 과목을 확정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일본에 도착한 후 학교에서 안내받은 과목들을 확인하고 수강할 과목을 결정하였다.

수강 과목은 크게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수업과 교환학생이 소속된 학부의 전공 수업으로 나뉜다. 희망하는 과목을 종이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현지 지도교수님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일본어 수업은 논문 작성, 논문 독해, 말하기, 한자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어 레벨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진다.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소속 학부의 일본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므로, 일본어로 전공 내용을 학습하고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수강할 과목을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이나 강의계획서 등을 미리 찾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에서 실제 수업을 확인한 후 자신

의 일본어 수준과 관심 분야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강신청을 할 때 ‘코마’라는 생소한 개념을 듣게 될 것이다. 코마라는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기숙사

교환학생은 시즈오카국제협력회관(静岡国際交流会館)에 배정된다. 기숙사는 여러 명의 개인실이 하나의 생활 공간을 이루는 형태로, 개인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개인실과 별도로 화장실, 샤워실, 주방, 공용 테이블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있으며, 1층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2개도 마련되어 있다.

기숙사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용 주방이나 라운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었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접할 수 있었다.

물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중국인 룸메이트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에게 익숙한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나에게 매일 씻는 게 당연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에게 밥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교환학생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동시에 공용공간 사용, 소음, 청소 등 기본적인 생활 규칙을 서로 배려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교환학생 승인 후 해당 학교에서 메일이 올 것이다. 해당 메일의 연락선을 확인하길 바란다.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정치학개론

일본의 정치학을 전반적으로 배우는 수업으로, 한국에서 배우는 정치학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정치제도와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의회, 선거제도, 여론과 선거 마케팅, 미디어와 정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다른 점을 직접 비교하며 배울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일본 정치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으며, 실제 일본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는 등 일본 정치의 현장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일본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특히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다.

평화학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국제적·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수업이다. 한국에서는 평화 문제를 다룰 때 남북관계나 한반도 분단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와 기억, 오키나와 문제, 평화교육, 국제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총 4명의 교수님이 돌아가며 수업을 진행하며, 평화교육 분야 2명과 국제관계 분야 2명의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평화 문제를 배울 수 있었다.

정치학 세미나

일본어로는 「ゼミ(제미)」라고 부르는 마치 대학원 세미나 수업이다. 제미는 유학생은 그냥 들을 수 없다. 지도교수님의 권유 및 허락이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 또한 유학생은 제미를 수강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청강의 차원에서 들어야 한다.

제미에서는 일본의 의회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학생들이 돌아가며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발표가 끝난 후에는 다른 학생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디펜스 과정이 이루어졌다. 일본어로 전문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즉석에서 질문에 답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수강한 과목 중 가장 어려웠던 수업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일본어로 전공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기도 했다.

또한, 이 수업은 유학생의 수업이 아니라, 실제 소수의 일본인 학생들과 진행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 덕분에 좋은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다. 다들 나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줘서 고맙다. 샤라웃 투 이와타니(오사카 왕자님), 히카와, 아키토. 너네 덕분에 나는 현지 일본 남학생 슬랭 말투를 구사하는 여자가 되었다. 여학생들은 좀 수줍음이 많은지 잘 다가오지 않았다. 여학생들과 친해지려면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교수님께서 모처럼 한국인 학생이 제미에 왔기 때문에 다같이 도쿄에 견학가자며, 도쿄 아카사카역에 있는 국회와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그리고 일본인들도 들어가기 힘든 자민당 본부까지 데려다주셨다. 일본의 전 외무대신을 역임하셨던 카미카와 요코 의원님 덕분에 국회 식당에서 식사도 해봤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서 좋았다!)

일본어 5A-S (논문 작성)

일본어로 학술적인 글을 작성하는 수업이다. 일본어로 논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일본어 실력이 요구된다. 일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일본어 글쓰기 실력이 확실히 향상된다. JLPT N1 이상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었거나, 일본어로 학술적인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제대로 키우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한다.

일본어 5B-S (논문 독해)

관심 있는 분야의 일본어 논문을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수업이다. 교수님께서 수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으시며, 학생들이 일본어 논문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다. 일본어로 된 학술자료를 읽는 연습을 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하며, JLPT N2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수업이다.

일본어 4A-B (말하기)

일본어로 친구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이다. 매주 일본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주제도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일본어로 대화할 기회를 많이 얻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 날 직접 키운신 청양고추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청양고추 수량이 얼마 없어서, 청양고추를 처음 보는 학생들은 가져가지 말고, 되도록 청양고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 위주로 가져가라며 소리치시던 모습

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일본어 4A-D (한자)

일본어 한자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수업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수강한 일본어 과목 중에서도 교수님이 가장 친절하셨던 수업으로 기억에 남는다. 레벨 5의 일본어 과목에 비하면 수업 내용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으며, 한자를 체계적으로 복습하고 익힐 수 있었다. 수업 중에는 가끔 조별 활동도 진행되었다. 조별 활동을 통해 각국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다. 일본어 한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한다.

일본어와 문화 S

일본의 종교, 역사, 교육제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일본 문화를 배우는 수업이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부담 없이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폭넓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비교적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수업이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비일본어과. 기본적으로 JLPT N2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주로 교재와 시험을 중심으로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문법이나 어휘에 비해 실제 일본어로 대화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수업, 친구들과의 대화, 일상생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본어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서 실제 회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교과서에서 배우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일본인들이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투를 익힐 수 있었으며,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일본어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생각의 과정 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겼다. 보고서를 쓰고 있는 현재는 가끔 뇌 속에서 일본어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전공 수업을 일본어로 수강하면서 일상 회화뿐만 아니라 정치·법학 등 전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일본어 표현에도 익숙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어를 ‘공부해야 하는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기 위해 매일 사용해야 하는 언어로 경험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 생활이 일본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어로 대화할 상대방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일본인 교우관계는 재미에서 형성되었고, 다 남자였기 때문에 나는 일본 현지 남자 고딩 말투를 구사하는 여자가 되었다.

3. 학습 방법

앙상블 스타즈라는 게임을 일본어 버전으로 즐겼다. 게임 속에 일본어로 된 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해 및 회화 연습하기 매우 좋았다. 그리고 스루가야의 3층에 가서 중고 만화책을 산다. 해해. 타카미네 미도리와 모리사와 치아키에게 너무 감사하다.

III. 생활

1. 입국 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입국 시에는 기본적인 의류와 세면도구, 개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시즈오카 대학교 국제교류회관의 경우 침대, 책상, 옷장 등의 기본 가구와 침구류가 제공되고, 공용공간에는 주방과 세탁기·건조기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부 한국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다. (약간의 팁: 공부할 책 많이 가져오지 마라. 공부 하~나도 안 한다.)

시즈오카의 물가는 도쿄나 오사카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이라고 느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교통비나 외식비 등에서도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또한 시즈오카대학교 국제교류회관의 경우 유학생 기준 월 임대료가 약 25,000엔이고 기타 전기세 등이 별도로 부과되는 등 기숙사비 역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다만 시즈오카는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자체보다는 이동의 불편함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자전거를 구입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시즈오카는 교환학생 생활비를 계획함에 있어서 도쿄·오사카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느꼈다.

다만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외식을 많이 한다면 생활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같은 경우, 많은 후기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은 5백만원에서 6백만원 정도면 충분하는 리뷰를 보고 7백만원을 준비해갔는데... 너무 부족하다. 실제로 내 친구(초도키메키센덴부 스다 아키 팬 인플루언서)는 돈이 부족하여 사이제리아에 취직했다. 물론 7백만원이 작은 비용은 아니지만, 나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천만원을 준비해서 오길 바란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① 식사

기숙사 바로 옆에 마트(이토요카도, 마무)와 편의점(세븐일레븐, 로손)이 있어 식재료나 간단한 식사를 구하기에 매우 편리했다. 특히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기숙사의 공용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비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숙주가 매우 싸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 마라탕과 나베를 주로 만들어 먹었다.

또한 시즈오카는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느꼈으며,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경우에는 식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었다. 기숙사 주변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점은 시즈오카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이었다.

② 의료

교환학생 생활 중 실제로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크게 베어 병원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경험이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일본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 및 치료에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또한 일본에서 가입한 건강보험과 별개로 출국 전에 가입해 두었던 해외유학생 보험에도 해당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꽤나 쓸쓸했다. 이 경험을 통해 해외에서 생활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

따라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일본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출국 전에 별도의 해외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과 서류를 바로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결 인정 서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③ 교통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는 버스나 전철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학교와 기숙사 주변의 주요 생활권을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중고 자전거의 경우 약 13만 원 이내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었으며, 교통비를 절약하면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기숙사와 마트, 편의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가까운 편이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다. 다만 시즈오카 대학교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오르막이 많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충분히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었다. 시즈오카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다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④ 은행 및 결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하나은행 트래블로그를 주로 이용하였다. 필요한 금액을 그때그때 환율을 확인한 후 엔화로 환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다. 별도로 많은 금액의 현금을 미리 환전해 갈 필요가 없었으며, 일본에서 생활비를 관리하기에도 편리했다.

일본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많아 트래블로그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다만 일부 매장이거나 소규모 식당 등에서는 현금 결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만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친구들과 소위 ‘N빵’을 하는데, 일본의 경우 ‘PayPay(페이페이)’라는 어플로 N빵을 한다.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

⑤ 통신

통신은 라쿠텐 모바일(楽天モバイル)을 이용하였다. 라쿠텐 모바일은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라쿠텐 포인트를 통신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평소 라쿠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라쿠텐 포인트를 활용하는 학생이라면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신 품질에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 지하나 높은 곳, 사람이 매우 많은 장소에서는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콘서트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또한 기숙사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다른 학생이 인덕션을 사용하거나 세탁기를 작동시키는 경우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는 일이 종종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 등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숙사 와이파이만을 믿기보다는 모바일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개인적으로는 라쿠텐 모바일의 전파 문제보다 라쿠텐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였다. 통신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다른 통신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비용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라쿠텐 모바일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3월) 일본 입국 직후 나고야 2박 3일 여행을 하며 일본 생활을 시작하였다.

4월) 시즈오카에 정착하고, 일본 생활 적응에 집중하여 별도의 여행은 하지 않았다.

5월) 나고야에서 열린 EXO PLANET 6 EXhOrizon in NAGOYA를 관람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나고야를 방문하였다.

6월) 오사카 4박 5일 여행을 하였다. 오사카뿐만 아니라 효고현에 위치한 니지겐노모리의 나루토 테마파크를 방문하였으며,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한신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였다.

7월) 도쿄 가든 시어터에서 열린 TATSUYA KITANI Presents “Hugs Vol.6”를 관람하기 위해 3박 4일 도쿄 여행을 하였다. 나의 고향 이케부쿠로에도 방문하여 좋아하는 2차 창작 원서도 구입하였다. 또한 시즈오카의 영화관에서 치이카와: 인어섬의 비밀을 관람하며 일본의 영화관 문화를 경험하였다. 애니메이션 카페에서 열리는 앙상블 스타즈 콜라보 카페에 방문하기 위해 방문 티켓 추첨을 넣었다.

8월)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하며 삿포로를 여행하였다. 기타니 타츠야의 원맨 아레타 투어 라이브를 내년 1월에 관람하기 위해 로티켓에서 티켓 추첨을 넣었다.

시즈오카에는 일본의 유명한 중고 굿즈 가게인 ‘스루가야’의 본점이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내내 자주 방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저렴하나, 간혹 시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만다라케, 케이박스, 라신반, 메루카리 등에 출품된 가격들을 비교하며 구매하면 좀 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

교환학생 기간 동안 생활비는 월평균 약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여행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나의 경우 한 달에 약 40만 원을 기숙사비로 지출하였으며, 식비 및 여가비로 약 60만 원, 여행비로 약 5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

시즈오카는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물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일상적인 생활비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다만 교환학생 기간 동안 일본 내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행비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여행을 많이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본 생활비와 별도로 여행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월 15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되, 여행이나 쇼핑 등의 개인적인 지출을 고려하여 여유 자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일본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능력과 일본에 대한 이해의 변화였다.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주로 교재와 시험을 통해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해야 하는 과목’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수업을 듣는 것부터 친구와 대화하고, 병원에 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까지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다.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어로 문장을 정리 만드는 과정 없이 바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인 친구들과 지내면서 교과서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말투, 실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일본 정치, 평화학, 정치학 세미나 등의 수업을 일본어로 수강하면서 일본의 정치와 사회를 일본의 시각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학 세미나에서는 일본인 학생들과 함께 일본의 의회와 지방선거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일본어로 발표와 디펜스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내용을 일본어로 발표하고 즉석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어로 전공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교환학생을 하면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과 일본을 여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여행을 할 때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간단하게 일본어를 사용하는 정도였다면,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는 병원에 가거나 은행과 보험 문제를 처리하고, 기숙사에서 다른 국적의 학생들과 생활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을 직접 해결해야 했

다. 실제로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3바늘을 꿰매는 일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낯선 환경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본인의 몫도 해내며 나의 몫까지 해낸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느꼈다... 엄마...ㅠ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정치와 국제관계에 관한 수업을 듣고, 일본의 국회와 정당 등을 직접 견학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 정치와 북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구체적인 학업·진로 목표로 발전하였다. 앞으로 일본의 정치와 북일관계를 연구하고 싶다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설정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반도 문제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다루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연구자료 또한 무수히 많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민감한 이슈라며 예전에 비해 잘 다루지 않는 추세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활발하다. 일본에는 아직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한 연구도 많아서 마치 보물이 숨겨진 무인도를 찾은 기분이었다. 논문들의 제목들을 보며, 일본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여 언젠가 이것들을 전부 자유롭게 번역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돌이켜보면 이번 교환학생은 단순히 일본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대학과 사회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특히 앞으로 대학원에서 일본 정치와 북일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나에게 이번 경험은 그 방향이 나에게 정말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일본의 정치·사회와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일본 정치와 북일관계를 중심으로 학업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정치와 국제관계에 관한 수업을 일본어로 직접 수강하면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학술자료와 정부·의회 자료 등을 원문으로 이해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향후에는 정치학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일본 정치 및 북일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특히 북한과 일본의 관계, 일본의 대북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일본어로 작성된 학술논문과 1차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와다 하루키의 자료를 완벽히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싶다.

또한 이번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학업적인 지도를 해주신 현지 지도교수님께서 향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를 계기로 교환학생 기간에 형성한 학문적 인연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일본의 연구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싶다. (제미 청강하길 잘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정치 및 북일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한일 양국의 자료와 관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이러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나에게 어떤 점이 부족하며, 앞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결정하며, 다들 마음 한켠에 일본인 단짝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꿈을 품고 올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일본인 단짝 친구를 사귀긴 했지만, 이건 사실 극도로 희귀한 케이스이다. 일본인들은 ‘혼네토 다테마에’, 겉과 속이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단짝 친구 사귀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니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일본인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길 바란다.

인생을 살며, 자신과 생각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욱 희귀하고 귀중한 경험이다. 나는 그 경험을 한국인 친구들에게서 느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본인이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즐거운 친구를 사귀어라. ‘모처럼의 일본인데 한국인 친구는 좀...’ 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외국인 친구에 대한 강박을 지워라.

그리고 만약 시즈오카 재학생 중에서 본인을 한일 혼혈이라 소개하며,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오는 여학생을 꼭 조심하라. 한국인 유학생만을 노리는 골치 아픈 학생이다. 매 학기마다 그 학생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한명 두명이 피해본 게 아니다.

4. 기타사항

꼭~ 먹어보길 추천하는 일본 음식: 츠케멘, 지로라멘 (가기 전에 주문 공부하고 가는 것을 추천함), 돈까스 (한국의 돈까스와 차원이 다름. 돈까스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던 내가... 일주일에 돈까스를 2번이나 먹는 돈까스 오타쿠가 되었다.)

김치가 먹고 싶은 경우, 일반 마트에서 파는 기무치들은 전부 양도 적을뿐더러, 비싸다. 나는 돈키호테의 대용량 기무치(1kg에 300엔대)를 사서, 실온에 1주일간 방치시키며 기무치를 숙성시켰다. 그러면 기무치가... 김치가 된다! 또 다른 팁으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사서 숙성시키는 것이 있다. 김치는 본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아무 지장 없다.

세븐틴 호시인가 우지인가 아무튼 아이돌 세븐틴이 그려진 김치는 맛없다. 한국의 브랜드이지만 너무 맛없다. 살면서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이 없었다. 그거 사지 마라. 그거 비싸긴 제일 비싸고, 맛없긴 제일 맛없다. 돈 아껴라.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친구들과 가라오케 마네키네코에서 가서 학생 할인을 받아 새벽 4시까지 놀았다
가라오케는 기본 1600엔인데, 학생 할인을 받으면 시간 제한없이 880엔이다!
심지어 드링크바와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무제한!

내가 유성대의 SUPER NOVA REVOLU5TAR를 부르고 있는 사진



효고 고시엔의 한신 고시엔 구장

고시엔은 일본 야구 역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곳이다! 가보는 것을 적극 추천!
내 옆자리에 앉은 화끈 친절하 오사카 아저씨 덕분에 에다마메도 먹어보았다.



한국인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불닭냉면을 만들어 먹었다
불닭볶음면과 냉면 육수는 칼디에서 구할 수 있었다.

빨간 옷은 입은 인형은 앙상블스타즈의 모리사와 치아키
왼 손잡이에 있는 남자는 뫼비우스의 기타무라 타쿠미

앞에 있는 귀여운 여자는 메가폰이라는 지하 아이돌 그룹의 아카네 이로하



정치학개론 수업시간에 스즈키 야스토모 시즈오카 현지사의 강연



시즈오카에서 정~~ 말 맛있는 돈까스가게 '운노'
운노 안 가보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크~게 후회할 것.
손에 있는 필름포카는 키타니타츠야와 나카지마 켄토



수업 때 활용했던 자료. 유학생 수업이 아니고 실제 일본인 재학생 대상 수업.
 닛케이 신문 활용해서 수업한다. 유학생이라고 봐주는 거 하나도 없다.
 일반 재학생 수업이 듣고 싶다면 신문 정도는 읽는 일본어 실력이 필요하다.



일본 국회 견학

우리나라의 국회와 달리 일본의 국회에는 천황의 자리도 있다.



일본 국회의 명물 카츨카레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늘 국회 식당에서 카츨카레를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세요. 일반 시민이 일본 국회의 식당에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잡아주는 예약이 꼭 필요하다. (카미카와 요코 의원님 덕분에 방문할 수 있었다.)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자민당 본부의 총재실 견학

일본인들도 출입하기 어려운 곳을 일본의 지도교수님 덕분에 가봤다!

실제 총재실이라 의자에 앉아보는 것이 원래는 불가능하지만, 지도교수님께서 나를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 소개하니 자민당의 관계자분께서 앉아서 사진을 찍게 해주셨다.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에 엉덩이와 제 엉덩이는 같은 의자를 공유했습니다.)



교수님 잘지내시죠?

전 자민당 총재가 되었습니다

午後6:22

견학 후 한국의 가까운 사이의 교수님께 안부 연락.



정치학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나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교환/방문학생)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일본 시즈오카	파견 학교명	시즈오카대학
	파견 시기	[2026]학년도 [1]학기	파견 기간	6개월 / 1년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心理学	심리학	
		スポーツ文化論	스포츠 문화	
		スポーツ	소프트볼	
		japanese4 A-S	일본어 문법	
		japanese4 B-S	일본어 말하기 실력	
japanese4 C-S	일본어로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			
japanese4 D-S	한자			
체험수기	Ⅰ.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하마마츠 캠퍼스와 시즈오카 캠퍼스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시즈오카 캠퍼스이고 유학생 관련 이벤트가 많아 다른 유학생이나 일본인들과 함께 교류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건강검진과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는지(통장 잔고) 등 오티 때 준비해달라고 말해주신 서류를 준비 후 시즈오카 대학에서 기숙사 신청 등 연락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비행기표 예매, 비자신청을 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학부에서 주신 종이에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작성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숙사 입주일에 가면 국제 교류팀 분들께서 방 소개와 설명을 해주십니다. 방에 옷장 책상 침대 다 있고 저는 옷장에 옷걸이랑 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세면대, 화장실, 샤워실이 두 개씩 있습니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NAO TAKI

inbound@adb.shizuoka.ac.jp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yllabus 등 수강 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제출)

シラバス(※変更の可能性があることを予めご理解ください)	
01	ガイダンス、トレーニング・トレーニングサイクルとは 4/13
02	スポーツパフォーマンス構造論Ⅰ 4/20
03	スポーツパフォーマンス構造論Ⅱ 4/27
04	国内の
05	スポーツパフォーマンス構造発表② 5/25
06	スポーツパフォーマンス構造発表③ 6/1
07	スポーツパフォーマンス構造発表④ 6/8
08	「文化としてのスポーツ」について 6/15
09	「文化としてのスポーツ」に関するディスカッション 6/22
10	「スポーツ基本法およびスポーツ推進計画」について 6/29
11	「スポーツ推進計画」に関するディスカッション 7/6
12	「部活動改革について」 7/13
13.5	「静岡県中部地域の部活動改革」について 7/13~16※オンデマンド
14	「部活動改革」に関するディスカッション(村田)7/17金
15	期末試験【村田のみ】7/27

2

스포츠 문화론이라는 수업에서는 스포츠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중간고사 때는 시험이 없고 발표로 대체가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스포츠의 종목을 고른 후, 교수님이 같은 스포츠를 작성한 사람들끼리 랜덤으로 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일본인이랑 함께 발표를 할 수 있어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추천합니다. 기말고사는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쉽게 내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를 잘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현지인과 대화, 수업에서 발표 등 그룹으로 하는 활동이 많아 일본어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어 많이 늘게 됩니다.

3. 학습 방법

수업에서 매주 숙제를 내주셔서 숙제와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어 수업은 다 그룹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평소 말하는 게 어려웠던 분도 편하게 말하기 실력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알바를 하실 분이라면 자격외활동허가서를 가져가셔야합니다.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발급 받을 때에 제출하시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 물가는 다른 도시에 비해 체감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살기 편하다 생각합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식사는 항상 직접 만들어 먹거나, 친구들과 외식을 합니다. 점심 시간에는 학식, 매점 모두 사람들이 많아서 먹기가 힘들어 도시락을 만들어 와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숙사비 등 스루가 은행을 사용하는데 스루가 atm이 학교에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공통 A동 1층 앞에 있습니다.)

버스도 정말 좋지만 자주 타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전거를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전거를 타야 등하교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갈 때에도 다들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서 매우 추천합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영화관이나 서점에 가는 것을 평소에 좋아해서 자주 갔습니다.

시미즈와 아타미라는 곳에도 축제를 할 때면 갔습니다. 시미즈 축제는 드라마에서 봤던 다양한 음식 부스가 있는 축제입니다. 아타미 축제는 불꽃축제이기에 음식 부스는 딱히 없었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왕복 항공권	389,500원	인천->나고야/시즈오카->인천
여행/유학생 보험	215,267원	여행자 보험 + 학교 보험(나중에 반환 가능)
기숙사비	125,000엔	숙박비
전기/가스/수도세	21,792엔	
식비 및 생활비	385,835엔	
통신비	13,358엔	
교통	13,000엔	
합계	약 5,635,600원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처음에는 교류에 대해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함으로 즐거움을 느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지내다 보니 일본어 실력도 빠르게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조선대학교에서 남은 학년을 다 들으며 교류 혹은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싶은 것을 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중간에 여행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여행비나 식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알바를 하실 분은 괜찮지만 알바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돈을 많이 모아

둘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편하게 말 거시는 걸 추천합니다. 말 거시면 반갑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일본어 못하는데 배우러 오신 거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배려해주시며 알려주십니다.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4. 기타사항

토스카드 좋습니다. 달에 5번 수수료 없이 돈 뽑을 수 있고, 어딜 가도 사용이 가능해서 편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코토바 학원(일본어전문학교)와 시즈오카 대학 분들과 교류하며 운동회를 했습니다.



아타미 불꽃축제에 유카타를 입고 갔습니다.(유카타는 일본인 친구에게 빌렸습니다.)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교환/방문학생)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일본	파견 학교명	시즈오카대학	
	파견 시기	[26]학년도 [1]학기	파견 기간	6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Japanese 3 B-S		일본어 읽기와 문법 중심 유학생 과목	
		Japanese 3C-S		일본어 듣기와 어휘 중심 유학생 과목	
		Japanese 3D-S		일본어 쓰기와 말하기 중심 유학생 과목	
		Japanese 4B-S		일본어 듣기와 어휘 중심 유학생 과목	
		Japanese 4D-S		한자를 포함한 종합 유학생 과목	
		Beginning Japanese IV		일본어 말하기와 문법 중심 유학생 과목	
		英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영어 회화 교양 과목	
Japanese Culture		일본 사회와 문화에 관한 전공 과목			
체험수기	1.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제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대학은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시즈오카대학교(静岡大学)입니다. 시즈오카대학교는 일본의 국립대학교로, 시즈오카 캠퍼스와 하마마쓰 캠퍼스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수업을 들은 곳은 시즈오카 캠퍼스였습니다. 시즈오카 캠퍼스는 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학교 주변에서 후지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캠퍼스 내부에는 강의동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생식당, 생협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학교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즈오카는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즈오카역 주변의 상업시설에도 쉽게 갈 수 있어 교환학생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광주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한적한 분위기라고 느꼈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파견 전에는 본교 국제교류팀을 통해 교환학생 선발 및 지원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시즈오카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파견이 확정된 후에는 재류자격 및 비자 신청, 항공권 예약 등 출국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파견 준비 과정에서는 본교와 시즈오카대학교에서 안내하는 이메일과 제출 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류자격 및 비자와 관련된 서류는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입국 후에는 주소 등록, 건강보험 가입 등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여권과 재류카드 등의 중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도 카드나 간편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현금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현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용품은 대부분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시즈오카대학교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출국 전 온라인으로 실시한 일본어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일본어 수업을 안내받습니다. 일본어 수업은 1~5레벨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는 중급에 해당하는 3레벨을 배정받아 학교의 안내를 바탕으로 3~4레벨의 일본어 수업과 전공 및 교양 수업 등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신청은 듣고 싶은 수업을 수강신청서에 수기로 작성한 뒤, 지도교수와 수업 담당 교수에게 상담 및 수강 허가를 받고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은 일반 학생과 수강신청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되는 안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학생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업 시간에 관한 기준이 있으므로 수강 과목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국제교류 담당 부서나 지도교수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생활한 곳은 시즈오카대학교 국제교류회관이었습니다. 국제교류회관은 시즈오카 캠퍼스에서 도보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는 5명이 하나의 유닛을 사용하며 샤워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의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침실은 개인실로 제공되며, 각 방에는 책상, 침대, 옷장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침구류로는 이불과 베개가 제공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시설 이용 방법, 쓰레기 배출 방법, 공용 공간 이용 규칙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일본은 쓰레기 분리배출 규칙이 지역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静岡大学 国際課(시즈오카 대학 국제과)

International Affairs Section, Shizuoka University

P: 054-238-4260

E: inbound@adb.shizuoka.ac.jp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시즈오카대학교에서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출국 전 온라인으로 실시한 일본어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일본어 수업을 안내받습니다. 일본어 수업은 1~5레벨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는 중급에 해당하는 3레벨을 배정받아 학교의 안내를 바탕으로 3~4레벨의 일본어 수업과 전공 및 교양 수업 등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신청은 듣고 싶은 수업을 수강신청서에 수기로 작성한 뒤, 지도교수와 수업 담당 교수에게 상담 및 수강 허가를 받고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은 일반 학생과 수강신청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되는 안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학생은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업 시간에 관한 기준이 있으므로 수강 과목을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국제교류 담당 부서나 지도교수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4레벨 한자 수업(Japanese 4 D-S)입니다. 저는 3레벨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단계 높은 4레벨의 한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매주 진행되는 한자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매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꾸준히 한자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습량이 늘었고,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오히려 가장 수강하기를 잘했다고 느낀 수업이었습니다. 어렵더라도 한자 실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제가 생활한 곳은 시즈오카대학교 국제교류회관이었습니다. 국제교류회관은 시즈오카 캠퍼스에서 도보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는 5명이 하나의 유닛을 사용하며 샤워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의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침실은 개인실로 제공되며, 각 방에는 책상, 침대, 옷장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침구류로는 이불과 베개가 제공되었습니다.

1. 외국어 습득 정도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의 대화,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일본인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직접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특히 회화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이 빠르게 말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 자연스러운 말투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배우는 일본어와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차이를 직접 접할 수 있었던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과 상대에 맞게 일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2. 학습 방법

일본어 수업에서 배운 단어와 문법은 과제와 시험을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복습했으며,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오면 사전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학습했습니다.

또한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수업에서 배운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회화 표현이나 또래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익힐 수 있었고, 실제 대화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일본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듣기와 말하기에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환학생 기간 동안 다양한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입국 시에는 여권, 재류자격 관련 서류,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일정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국 직후 사용할 세면도구, 상비약, 충전기 등 기본적인 물품을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일본의 다이소,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한국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피가 큰 생활용품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즈오카의 물가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느꼈습니다. 다만 외식비는 비교적 부담될 수 있으며, 편의점보다 슈퍼마켓을 이용하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도시락이나 반찬류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학교 안에는 학생식당과 생협이 있어 수업이 있는 날에는 교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편리했습니다. 학교 주변과 시즈오카역 근처에도 음식점,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슈퍼마켓이 있어 주로 이곳에서 식료품을 구입하여 직접 요리했습니다.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이나 다른 나라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도 있어 식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식을 자주 하면 식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를 절약하고 싶다면 학생식당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용품이나 의약품 등은 주변의 다이소와 드럭스토어에서 대부분 구입할 수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교환학생 기간에는 수업 외에도 학교 행사와 교류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일본인 학생과 다른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수업 외에서도 일본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시즈오카 시내를 둘러보거나 식사를 하고, 지역 행사와 문화 체험에도 참여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일본 대학생들의 생활방식과 문화, 실제 대화 방식 등을 직접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여행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시즈오카는 도쿄와 나고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변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아타미, 아베카와 불꽃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유적(登呂遺跡)을 견학하는 등 시즈오카의 지역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체류 기간 동안의 주요 지출 항목은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용품비 및 여가비 등이었습니다. 식비는 외식 횟수에 따라 차이가 크며, 학생식당이나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직접 요리하면 비교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학과 가까운 거리의 이동을 위해 현지에서 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 시즈오카 대학교 주변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 장기간 체류할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거의 하지 않고 큰 소비를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기숙사비를 제외하고 월평균 약 1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함께 생활한 다른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게 지출한 편이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는 개인의 외식, 쇼핑, 여행 등의 빈도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목	월평균
기숙사비(관리비 포함)	약 35,000엔
식비	약 50,000엔
통신비	약 4,000엔
교통비	약 10,000엔
생활용품비	약 10,000엔
기타(보험, 여가 등)	약 30,000엔

(+ 첫달의 경우 교재, 자전거 등)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일본어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한 경험입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 행정 절차, 친구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학습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일본어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빠른 일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듣기 능력과 상황에 맞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귀국 후에도 일본어 공부를 지속하여 JLPT N1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고, 이후 일본 워킹홀리데이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인 한국어교육과 이번 교환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일본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본어가 부족하거나 실수할까 봐 걱정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언어를 익히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학교 담당자나 튜터,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생활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수업과 기숙사 생활에만 머무르기보다는 학교 행사, 교류 행사,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적인 면에서는 자전거가 있으면 이동이 훨씬 편리하고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대학교 주변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면 출국 전에 미리 연습해 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4. 기타사항

교환학생 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부분 학교 담당자나 튜터,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사진



설명

시즈오카대학교 국제교류회관
기숙사 개인실



등곳길에 볼 수 있는 후지산



일본 고등학교 견학 당시 학생들이
만들어 준 환영 플래카드



유학생 동아리(KASA) 세계요리파티
한국팀 활동 - 한국인 후배들과
김밥과 호떡 준비



일본인 친구에게 빌린 유가타를
입고 참여한 아타미 지역 불꽃축제



유학생 대상 일본어 수업 강의실